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4년 2월 21일

CUOMO 주지사, HIV/AIDS에 걸린 저소득 뉴요커들을 위한 저렴 주택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30일 예산 수정 발표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HIV / AIDS에 걸린 저소득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저렴 주택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30일 예산 수정이 도입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 수정으로 인해 주정부의 900만 달러 약속으로 필수 주택 보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임상적/증상적 HIV병 즉 AIDS를 안고 살아가면서 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.

"이 조치는 HIV/AIDS의 쇠약화 효과로 고전하고 있는 불우 뉴요커들의 생명선입니다"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"이 수정을 통해 우리는 노숙자를 예방하고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"

HIV/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뉴요커들은 정부 주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임대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이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뉴욕시의 HIV/AIDS 수혜자를 위한 임대 지원은 세입자에게 요구되는 임대료 기여에 대한 30% 상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
많은 경우에 HIV/AIDS를 안고 비상 대피소 및 보조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는 있지만 식량 및 기타 필수 생계비에 추가하여 임대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. 이 새 보호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유지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피소를 나오게 할 것이며, 따라서 주정부는 제한된 수의 보조임대주택 침상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돌릴 수 있습니다.

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숙 및 주거 불안정성은 HIV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HIV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입니다. 사실, 노숙자 또는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안정된 개인에 비해 HIV/AIDS 감염률이 3-9배 더 높습니다.

Brad Hoylman 상원의원은 "뉴욕주의 HIV/AIDS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에 최근 발표한 저렴 주택 임대료 기여 상한을 확대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이 예산 수정 도입을 지지한다 고

말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HIV/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10,000여명 뉴요커들의 건강과 안녕을 크게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원에 있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하원도 우리 커뮤니티의 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"

Daniel O'Donnel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본인은 HIV/AIDS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천명 뉴요커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여 기쁩니다. 이 지원으로 많은 취약한 뉴요커들이 더 이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며 식량 및 약품 같은 다른 생활 필수품에 두려움 없이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. 본인은 의회 동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주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것을 통과시키 기를 기대합니다."

하원의원 Robert J. Rodrig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본인은 Cuomo 지사와 협력을 통해 HIV/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뉴요커들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내놓아 기뻤습니다. 저소득의 HIV/AIDS 감염 뉴요커들이 안정적인 저렴 주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과 건강 유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 프로그램으로 본인 지역구의 이 질병 감염자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자신의 임대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집행예산에 이 수정을 도입한 Cuomo 지사를 지지합니다."

Housing Works의 회장 겸 CEO인 Charles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이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주창해왔던 것입니다. 그것은 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전진입니다. 저는 뉴욕에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용기를 가진 Cuomo 행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."

Gay Men's Health Crisis의 임시 CEO인 Janet Wein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30% 임대료 상한은 HIV/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뉴요커들에게 오랜 숙제였습니다. 주거가 건강 관리입니다. HIV/AIDS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주거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함으로써입니다. GMHC의 행동센터 회원들은 이를 위해 7년 동안 투쟁해왔습니다. 그들은 불굴의 용감한 옹호에 대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.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룩한 그분들에게 본인은 GMHC 의 의뢰인, 이사회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내고 축하드립니다. 우리는 이것이 발생하도록 같이 협력하신 Andrew Cuomo 지사 및 Bill de Blasio 시장, 전상원의원 Thomas Duane, 상원의원 Liz Krueger 및 Brad Hoylman, 하원의원 Deborah Glick, Dick Gottfried 및 Robert Rodriguez, 전 시의회 의장 Christine Quinn, 시의회 의장 Melissa Mark-Viverito와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Korean